



맷 윌리엄스

‘올드 스쿨’ 감독 ‘니 탕이오’ 단장 ‘칼바람’ 맞았다

KIA, 9위 충격 분위기 쇄신 ... 격동의 스토브 리그 될 듯

시즌 최악의 성적을 낸 ‘올드 스쿨’ KIA 감독과 ‘니 탕이오’의 단장이 결국 칼바람을 맞았다.

KIA 타이거즈가 1일 전격적으로 맷 윌리엄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KIA는 58승 10무 76패(승률 0.433), 9위라는 성적에 대한 책임 그리고 분위기 쇄신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는 현장 책임자 정리에서 끝이 아니었다. KIA는 사의를 표명한 이화원 대표이사과 조계현 단장의 뜻을 수용했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과 경영지원본부장을 곧바로 새 대표로 내정했다. 새판을 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3인방 체제의 좌초로 KIA는 격동의 스토브리그를 보내게 됐다.

KIA의 ‘첫 도전’은 쓴 실패로 끝났다. 3인방의 퇴진으로 압축되는 이번 인사는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KIA는 2019시즌이 끝난 뒤 ‘빅리그 스타’ 출신의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했다. 타이거즈 역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이었다.

현대 야구에 걸맞은 데이터 야구와 팀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KIA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결과, 내용 모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부임 첫 해 5강 싸움을 하면서 6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올 시즌에는 순위 싸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시즌이 마무리됐다.

선발진의 불펜 투입이라는 ‘변칙 운영’, 세밀하지 못한 데이터 야구로 팬들의 원성을 샀다. 미래 자원 육성에도 큰 방향을 잡지 못했고, 윌리엄스 감독 만의 타이거즈 색도 만들지 못했다.

내부에서도 구대 한국 지도자보다 더한 ‘올드스

쿨’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코칭스태프와의 협업도 부족했다.

외국인 감독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한 사령탑과 마찬가지로 방향 없는 ‘실수연발’의 선수 출신 단장도 결국 퇴진의 길을 가게됐다.

KIA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조계현 단장의 재계약을 결정했다.

앞선 3년 동안 팀 안팎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지만 KIA는 ‘감독과의 호흡’을 강조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한 조계현 단장에게 2년의 시간을 추가로 안겨줬다.

구단의 조 단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중국에는 시즌 성적 9위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조 단장의 좌초우물 행보는 구단 불협화음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양현종의 해의 진출이 결정된 뒤 윌리엄스 감독은 기자들 앞에서 “FA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전력 강화를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채 1시간도 안 돼 조계현 단장은 다른 말을 했다. 기자실을 찾은 조계현 단장은 “감독이 FA를 언급했냐?”며 반문한 뒤 “내부 육성”을 강조했다. 전형적인 엇박자였다.

외국인 감독 체제에 맞춰 확실한 FA 지원도 해주지 못했고, 선수 영입과 FA 계약 과정 등에서 끊임없이 잡음만 냈다. 책임자로서의 책임감도 없이 ‘남탕’으로 일관하면서 구단이 하나로 뭉치지 못했다.

선수 출신이었지만 선수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면서 KIA의 선수 출신 첫 단장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이제 눈길은 새로운 인사에 쏠린다.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긴박하게 계약 해지가 결정되면서 최종 영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포스트시즌도 이제 막 시작된 만큼 다양한 후보군을 두고 놓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수 출신 단장의 단점만 확인한 만큼 단장 공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도 필요하다.

또 하나 눈길이 쏠리는 지점은 대표이사다. KIA는 2017년 우승 공을 인정해 허영택 단장에게 첫 전임대표라는 선물을 안겨줬었다. 어렵게 전임대표 시대는 열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내지 못했고, KIA는 다시 겸임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그룹에서 직접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강한 뜻이 반영됐다.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룹과는 달리 정해진 야구단 조직을 전폭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KIA가 파격적인 인사로 ‘왕조 재건’을 위한 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임원상, 월드컵 예선 벤투호 승선

A조 5~6차전 출전 25명 발표

부상 황의조 대신 김건희 호출

광주FC의 ‘에이스’ 임원상이 벤투호에 승선했다.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1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A조 5~6차전에 나설 태극전사 2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임원상도 명단에 오르며 다시 한번 벤투 감독 앞에서 어필 무대를 갖게 됐다.

임원상은 2020년 11월 멕시코-카타르와의 A매치 원정 2연전 대표팀 명단에 포함, 생애 첫 A대표팀 발탁 기쁨을 누렸다. 이와 함께 박기동, 이승기, 나상호에 이어 광주 구단 4번째 국가대표 타이틀도 차지했다.

올 시즌 중반 부상으로 고전했던 임원상은 최근 특유의 스피드로 절정의 감각을 보여주면서 다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됐다.

한편 벤투 감독은 최근 소속팀 훈련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간판 스트라이커 황의조(보르도)를 대신해 김건희(수원)를 호출했다.

김건희는 올 시즌 6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됐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문제로 논란이 됐던 벤투

호의 개근생 나상호(서울)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나상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지만 봉사활동 시간이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예술-체육요원은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 544시간을 소화해야 한다. 이를 다 채우지 못하면 의무복무기간이 1년 연장되고, 연장 기간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한국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5차전을 치른다. 이어 중동으로 건너가 16일 이라크와 6차전을 치른다. 이라크전 장소와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11월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출전 25명 명단

▲GK = 조현우(울산)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구성윤(김천) 송범근(전북) ▲DF = 김민재(페네르바체) 박지수 정승현(이상 김천) 권경원(성남) 이종우(포항) 홍철·김태환(울산) ▲MF = 임원상(광주) 정우영(알사드) 백승호 송민규(이상 전북) 황인범(카잔) 이재성(마인츠) 이동경(울산)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FW = 조규성(김천상무) 김건희(수원)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카타르 월드컵 11월 최종예선 벤투호 선수 명단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 A조 5~6차전

- 11월 11일 아랍에미리트전(홈: 고양종합운동장)
- 11월 16일 이라크전(원정: 미정)

FW
조규성(김천상무), 김건희(수원)
MF
정우영(알사드), 백승호·송민규(전북), 황인범(카잔), 이재성(마인츠), 이동경(울산),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임원상(광주)
DF
김민재(페네르바체), 박지수·정승현(김천), 권경원(성남), 이종우·김진수(전북), 강상우(포항), 홍철·김태환(울산)
GK
조현우(울산),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구성윤(김천), 송범근(전북)

연말뉴스

광주FC, 파이널라운드 강원과 아쉬운 무승부

전남 드래곤즈 시즌 최종전 패배 내일 대전과 승격 준플레이오프

광주FC가 아쉬운 무승부로 파이널라운드 일정을 시작했다.

광주는 지난 3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FC와 K리그1 2021 34라운드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B그룹에서 생존을 위한 ‘파이널라운드’에 돌입한 광주에는 아쉬운 무승부였다.

광주는 전반 29분 페널티킥으로 선제실점을 했지만, 후반전 멋진 역전골을 연출했다.

골키퍼 윤보상의 호수비 페레이드로 강원 공세를 막은 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코너킥 상황에서 엄지성의 슈팅이 강원 골키퍼 이범수에 막혔지만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광주의 집중력이 빛났다.

이요뜸이 원발로 환상적인 포물선을 그렸다. 이어 골키퍼 이범수가 가까스로 쳐낸 공이 골대 앞에서 기다리던 이찬동 앞에 떨어졌다. 이찬동은 오른발로 공을 때려 골대를 갈랐다.

올 시즌 친정으로 복귀한 이찬동이 김원식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차고 만든 극적인 동점골이었다.

그리고 김호영 감독이 후반전 반격을 위해 투입한 허을카드도 적중했다.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후반전 분위기를 이끌었던 허을이 임재민을 상대로 공을 뉘아체 그대로 강원 골대로 전진했다. 그리고 원발로 시원하게 슈팅을 때리면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광주는 필사적으로 강원 공세를 막았지만 후반 45분 홈구장을 침묵에 빠트린 골이 나왔다.

신세계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 광주 골대 오른쪽 상단을 뚫으면서 승부가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전남 드래곤즈는 안산그리너스와의 2021 시즌 최종전에서 2-3 패배를 기록했다.

안산 이상민의 1골 1도움의 활약에 전반전 2골을 내준 전남은 후반 26분 사무엘의 골로 침묵을 깼다.

하지만 후반 34분 세 번째 실점을 하면서 분위기가 기울었고, 후반 44분 나온 서명원의 마수질이 골로 2-3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13승 13무 10패(승점 52), 4위로 정규시즌 결승선을 통과한 전남은 3일 운명을 건 ‘단판승부’에 나선다.

전남은 이날 오후 7시 대전한밭종합운동장에서 3위 대전하나시티즌과 승격 준플레이오프를 갖는다.

내일은 없는 단판 승부다. 또 3위 어드벤처가 있기 때문에 4위 전남은 이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플레이오프 티켓을 얻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